경제산업성「쿨 · 재팬(Cool Japan)」 수출전략 추진 본격화

경제산업성은 애니메이션, 패션, 식(食) 등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일본문화「쿨・재팬」을 세계로 수출하는 사업을 2011년도부터 본격 전개할 예정임. 2020년에 13조엔 규모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임

□ **경제산업성은 애니메이션, 패션, 식(食) 등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일본문화「쿨・재팬」을 세계로 수출하는 사업을 2011년도부터 본격 전개할 예정**

ㅇ 주류, 식품재료를 소개하는 안테나숍을 현지에 일정기간 설치하거나, 상대국 유통업자와 연계하여 보급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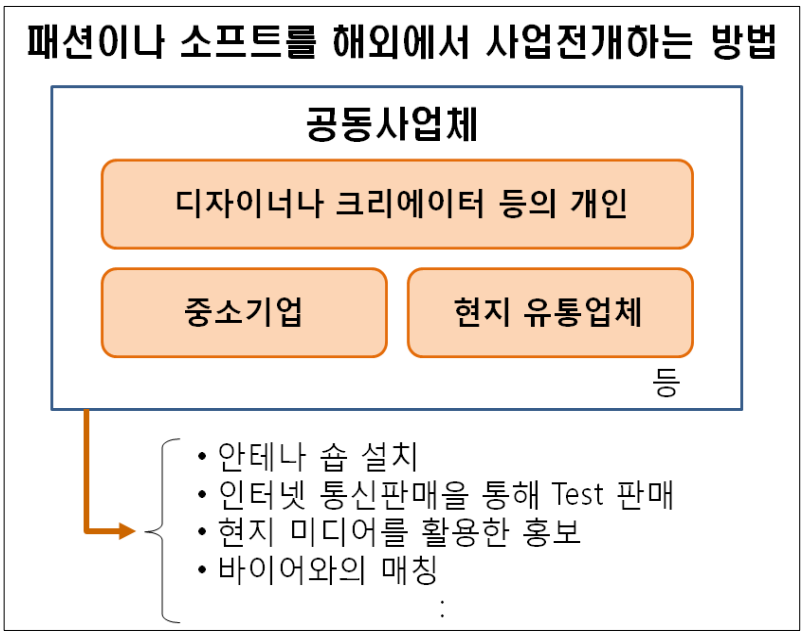
ㅇ 중소기업, 장인, 크리에이터와 같은 개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지원을 확대시키고, 2020년에는 13조엔 규모의 수출 규모를 목표로 함

□ **경제산업성은 2011년도「쿨・재팬전략」추진을 위해 정부예산에 14억엔을 반영하였음**

ㅇ 구체적으로 중국에 패션, 생활용품을 수출하거나, 일본방식의 지상디지털 방송을 채용한 브라질에 애니메이션, 가전을 판매하는 등 10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

○ 중국에서는 우선 국내디자이너와 중소기업 등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(공동사업체)를 설립하고, 현지에서 판매

<패션, 소프트사업 해외전개 방법>



□ **경제산업성은 '10.6월, 「쿨・재팬실」 설치.' 11년도에는 국장급 「크리에이티브 산업심의관」으로 승격시켜 패션과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**

○ 일본은 디자인, 애니메이션, 패션, 영화 등 문화산업을 일본 경제성장전략의 하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, △관민연계에 의한 해외진출 촉진, △인재육성 지원 등을 도모

* 경산성은 **△국내외 민간관계자와 연계, △해외시장개척, △국내외 이벤트개최 등을 통한 일본문화사업 홍보, △대학교와의 연계・인재매칭, △인재육성** 등

○ 경산성에 의하면, 2020년 패션・식・콘텐츠 등의 세계시장규모는 932조엔으로 전망. 만약 1.3%정도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13조엔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.

○ 간 총리도「쿨・재팬전략」에 대해 **"21세기 일본부활을 위한 21개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"** 라고 강조

□ **일본 정부는 올해「쿨 재팬 관민회의」를 매월 개최하고, 문화산업해외전개를 위해 안고 있는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 예정**

○ 1월~4월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「쿨・재팬전략」으로 확정발표

○ 일본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문화사업은 의도적으로 전개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1.1.8).「クールジャパン国別に輸出戦略」
日本經濟新聞(2010.12.22).「文化産業 丶輸出規模最大4倍目指す」
経済産業省(2010.06.08).「クールジャパン室の設置について」